

☞ 오늘의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 17:19).



잘 익은 벼 위로 새들이 날고 있다. 인터넷 신문에서 퍼옴.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라고 충고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하루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무엇인지 경험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유혹 받고 헐박 받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며, 현재 허무한 세상에서 존재할 용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만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의 토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이며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컬리지 4실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영혼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이 사실을 허투루 대한 적이 많았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용서해주시요.

목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쏟아낸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시험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앞으로는 악에 굴복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41장 (내가 산을 향하여) ... 다 함께

임성숙

정미

웃거리

1. 내 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네 -
2. 나 의 가-는 발-걸-음 지-키 시---네 -
3. 아 해-님-은 나---를 지-키 시---네 -

도움-어디서 오-는-가 그-어-디-서 -
줄고-쉬지도 앓-으-며 지-키-시-네 -
나의-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네 -

천지 지으신 아-해-님 나의하-나-님 -
낮의 해-와 밤-의 달 해-치-못-하-고 -
나의 영혼을 긍-휼-히 보-살-피-시-고 -

항 상-도-와 주-심-을 내가아---네 -
나 의 그-늘 되-시-어 덮으-시-네 -
지 금 부-터 영-원-히 지-키-시-네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의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예레미야애가 1: 1-6 ... 신창식 집사

성서교독 시편 37: 1-9(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악한자가 잘된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며 불의한자 잘산다고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들모두 풀과같이 속히베임 당하겠고 채소같이 삼시간에 스러지고 말것이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른일을 행하는자 이땅위에 살아가며 주님평화 누리리라
-우리들의 즐거움을 주에게서 찾을지라 주님께서 우리맘에 소원들어 주시리라
 우리주께 우리앞날 다말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몸소우릴 도와주실 것이라네
-햇빛처럼 우리울음 빛이나게 해주시고 대낮처럼 우리정의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앞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라 악한자가 잘된다고 절대불평 말지어다
-화를내고 격분하면 자신에게 해로울뿐 불평하지 말지어다 화와격분 버리어라
-악한자들 언젠가는 끊어지고 말겠지만 우리주님 기다리면 땅을물려 받으리라

제2독서 디모데후서 1: 1-14 ... 신창식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7: 11-19 ... 신창식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믿음과 구원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2,4절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오늘 우리는 성(聖)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소리 높여 찬양하듯이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지난주일 헌금 740,500원 (주일헌금: 440,500원, 통장헌금: 300,000원)
(2019/9/29)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9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주일헌금	1주	210,000	담임목사 교통비	300,000
	2주	240,000	강사비	900,000
	추 석		대관료	356,400
	4주	425,000	주보비	40,000
	5주	440,500	교육비	70,000
통장헌금		65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선교헌금		100,000	선교비(뉴스엔조이,새물결플러스)	100,000
			간식비	72,660
수입계		2,065,500	지출계	1,889,060
*수입-지출	(176,440)		전월이월액	2,877,309
			현 잔액	3,053,749

10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6주	10/6	4층 아트컬리지 4실	박재진	신창식	오미영
창조절 7주	10/13	2층 세미나 1실	정용섭	채진진	이기령
창조절 8주	10/20	4층 아트컬리지 4실	이춘우	고중홍	양혜선
창조절 9주	10/27	2층 세미나 1실	박재진	윤동희	박수진

9월 29일 설교 “투쟁적인 믿음” 발췌

존귀와 권능

보통은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데, 본문은 존귀와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에게만 참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존귀와 권능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가치 있고 뛰어나 보여도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상에게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사람은 그 대상과 함께 허무에 떨어집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허무하다는 말인가, 또는 예술과 문학에 열정을 바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는 것 역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하고 오해하실 분들은 없겠지요. 지금 열거한 모든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렇게 살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존귀와 권능을 그 대상에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삶에 대한 종교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존귀와 권능을 바쳐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성경 구절만 짚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72:19). 다음은 이사야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사 6:3). 구약의 이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혹시 삶이 고단하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즉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해도 걸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느낄 겁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도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고후 4: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바치는 지경까지, 즉 생명의 신비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한평생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는 선한 싸움이라서 싸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